

기본소득 지급 후 신안·곡성 카드매출 크게 늘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한 전남 신안과 곡성의 신용카드 매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안은 매출이 두 배 이상 증가해 전국 시범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만 전국 시범지역의 생활업종 신규사업자는 감소해 소비 증가를 지역 상권 확대로 이어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기본소득당 옹혜인 의원이 국제청원간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신안의 올해 2분기 신용카드 매출액은 6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9억원보다 104.4% 증가했다.

곡성은 385억원에서 496억원으로 28.8% 늘었다. 두 지역은 올해 2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 1차 시범사업 대상지다.

신안과 곡성의 증가율은 비교 대상에 포

1차 사업 대상지, 신안 104.4%·곡성 28.8% 증가

전국 시범지역 청년인구↑…‘생활상권 형성’ 과제

합된 전남 14개 군을 모두 웃돌았다. 이들 지역에서는 영암이 14.1%로 가장 높았고 해남 11.1%, 함평 11.0%, 장성 10.8%, 화순 9.9%, 영광 9.8% 등이 뒤를 이었다. 담양은 0.2%, 보성은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옹 의원은 신안의 높은 매출 증가율에 대해 기존 햇빛바람연금에 농어촌 기본소득이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했다.

분석에 사용한 비교 대상은 올해 2월 기준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비수도권·비광역시 인구감소지역 55개 군이다.

전남에서는담양·구례·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영암·함평·영광·장성·

완도·진도가 포함됐다.

구례와 보성은 이후 2차 시범사업에 선정돼 올해 8월 첫 지급이 이뤄졌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도 시범지역의 카드매출 증가 폭이 비교지역보다 컸다. 신안·곡성을 포함한 1차 시범지역 10개 군의 올해 2분기 신용카드 매출액은 658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8% 증가했다. 비교 대상 55개 군의 증가율 9.9%보다 18.9%p 높았다. 신안에 이어 경북 영양이 67.2%, 전북 정수가 39.3%의 증가율을 보였다.

옹 의원은 소비 여력이 낮은 농어촌에서 기본소득이 기존 지출을 대체하는 데 그칠

농어촌기본소득 신용카드 매출액

지역	2026년 2분기	2025년 2분기	증가율
신안군	632	309	104.4%
영암군	234	140	67.2%
장수군	297	213	39.3%
곡성군	496	385	28.8%
순창군	477	373	27.7%
남해군	827	655	26.3%
청양군	489	391	25.0%
정선군	799	660	21.1%
육천군	1,216	1,026	18.5%
연천군	1,121	961	16.7%
합계	6,589	5,114	28.8%

자료제공: 옹혜인 의원실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이번 결과에서 일정 부분 소비 확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인구 변화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1차 시범지역 10개 군의 올해 8월 인구는 33만 495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 늘

었다.

이 가운데 19~34세 청년인구는 3만 8083명으로 3533명, 10.2% 증가했다. 반면 비교지역 48개 군의 전체 인구는 0.8%, 청년인구는 2.8% 감소했다. 인구 분석에서는 시범사업 선정 자체가 전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비교 대상 55개 군에서 구례·보성 등 2차 시범지역 7개 군을 제외했다.

신안과 곡성의 개별 인구 증가 수치는 이번 분석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소비와 인구 증가가 생활상권 확대로 이어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1차 시범지역 10개 군의 올해 2분기 생활업종 신규사업자는 476개로 전년 동기 569개보다 93개 줄었다.

같은 기간 폐업사업자는 323개에서 335개로 늘었다. 비교 대상 55개 군에서도 신규사업자는 줄고 폐업사업자는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주민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상권을 키우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옹 의원의 설명이다.

인구 증가 역시 이주 전 거주지를 함께 분석해 인접 농어촌 간 이동인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유입된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옹 의원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적립제원 일부를 시범지역 생활상권 조성에 활용하고,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협력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옹혜인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소비 효과와 인구 유입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됐는지도 시범사업자는 476개로 전년 동기 569개보다 93개 줄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재정경제부와 함께 ‘디지털 AI 시대, 중소기업의 혁신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기 제조 노하우, 피지컬 AI 시대 핵심 자산으로”

중소기업이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제조현장에 쌓인 공정 데이터와 숙련공의 노하우를 AI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별 데이터 축적과 업종별 공동 활용체계 구축을 병행하되, 기술유출을 막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GIST) AI정책전략대학원장은 21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재정경제부가 공동 개최한 ‘디지털 AI 시대, 중소기업의 혁신전략’은?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피지컬 AI는 공장·물류창고 등 실제 공간에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해 기계와 로봇을 움직이는 인공지능이다. 김 원장은 이러한 기술을 제조현장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산으로 중소기업의 공정 기록과 숙련기술을 꼽았다.

김 원장은 “로봇은 3년 뒤에도 살 수 있지만, 지나간 3년의 데이터는 살 수 없다”며 현장 기록을 지금부터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비 이상을 알리는 기록과 불량제품 사진, 작업일지 등이 버려지

김준하 GIST 교수, 중기중앙회 정책토론회서 제시 기업·협동조합·국가 역할 나눠 공동 활용 기반 구축 데이터 소유권 보호하고 제공 기업·숙련공 보상해야

거나 종이로만 남고, 숙련공의 판단 기준과 작업 요령도 충분히 기록되지 않은 채 사라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데이터 자산화는 단순한 수집을 넘어 활용과 수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장 기록을 보존하고, 어떤 설비와 작업 조건에서 생성됐는지 맥락을 붙인 뒤 품질과 보안 수준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AI 학습과 공동 활용, 보상·거래 등으로 연결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실행 방안으로는 개별 기업과 업종별 협동조합, 국가가 역할을 나누는 구조를 제시했다.

그는 “기업은 설비별로 어떤 기록이 생성되고 버려지는지 파악하고, 불량 사진·설비 알람·작업일지부터 저장해야 한다”며 “협동조합은 같은 업종의 기업들이 데이터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 명칭

과 기록 기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공동 실증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데이터 품질·보안 기준과 AI 학습 기반, 가치평가·보상체계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핵심 조건으로는 데이터 권리 보호를 들었다. 원본 데이터는 각 공장에 보관하고 AI 학습 결과만 공유하는 ‘연합학습’ 등을 통해 기술 유출 우려를 줄이자는 제안이다.

데이터에 대한 권리도 기업의 소유권, 숙련 노동자의 기여권, 산업·국가의 활용 권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 데이터를 데이터 품질·보안 기준을 지키면서 숙련기술을 기록하고 학습에 기여한 노동자에게도 성과공유나 사용료 등의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다.

정책 과제로는 품질과 회소성 등을 평가한 제조데이터의 공공 수매, 데이터 제공·이용 실적에 따른 정책금융 우대와 지

원사업 가점 등을 제시했다.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공정 데이터를 표준 형식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기업의 실천 과제로는 은퇴 전 숙련공의 판단 과정을 영상·음성·점검표로 남기고, 원청·설비업체·숙련업체와의 계약에 데이터 소유·활용 권한을 명확히 담을 것을 주문했다.

도입 초기에는 공장 전체로 범위를 넓히기보다 해결이 시급한 공정 하나에서 성과를 검증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회에는 산업계·학계·정부 관계자와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데이터와 실증시설을 함께 활용하면서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는 공동 혁신 모델을 제안했다.

간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기술과 경험을 AI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고, 이를 피지컬 AI와 연결해 수 십년간 쌓아온 암묵적인 제조 노하우를 이어가야 한다”며 단계별 지원과 협동조합 중심의 확산을 강조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현대자동차, ‘디 올 뉴 투싼’ 계약 개시

디자인부터 공간·주행 성능·전동화 기술까지 등급 최고

현대자동차가 ‘디 올 뉴 투싼’의 주요 사양과 가격을 공개하고 계약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투싼은 올해 말 글로벌 누적 판매 1100만대 돌파가 예상되는 현대차 대표 SUV로, 이번 모델은 6년 만에 선보이는 5세대 완전변경 모델이다.

투싼은 ‘아트 오브 스틸’을 바탕으로 완성한 강인한 디자인, 등급 최고 수준의 공간성,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높인 파워트레인, 한층 편안해진 승차감과 정숙성, 기본 트림부터 풍부하게 갖춘 고객 선호 안전·편의 사양, 플레드 오스 커넥트를 통한 첨단 디지털 경험 등으로 패밀리 SUV로의 상품성을 한층 강화했다.

투싼의 외관은 현대차 디자인 언어인 ‘아트 오브 스틸’을 바탕으로 정교한 선과 대담한 면이 조화를 이룬다.

투싼의 전면부에 클램펠 타입 후드와 수직형 H-엣지 라이팅 주간주행등, 간접조명 방식의 수평형 슬림 센터 램프를 적용해 당당한 인상을 구현하고, 측면부의 입체적인 펜더로 역동성을 강조했다. 후면부의 프리즘 리어 램프로 다채로운 시각 효과를 연출했다.

현대차는 투싼의 실내에 상·하단이 분리된 플로팅 구조의 크래시패드와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개방감을 살리고, 슬림 디스플레이와 더블 D컷 스티어링 휠로 주행 정보의 시인성을 개선했으며, 콘솔 팔레스트 히트 트레이와 현대 애드거기어 등으로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또 투싼의 전장장 전폭, 휠베이스를 기존 모델 대비 각각 60mm, 40mm, 30mm 늘려 동급 최고 수준의 공간성을 확보하고, 2열 도어 개방 각도를 넓혀 승하차 편의성을 높였으며, 트렁크 용량을 645L로 확대해 유모차나 캠핑

장비 등 부피가 큰 짐도 편리하게 실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차음 글라스와 흡차음재 적용을 확대하고 엔진·변속기 마운트 구조를 개선해 외부 소음과 진동의 실내 유입을 줄임으로써 앞좌석부터 뒷좌석까지 편안하고 정숙한 이동 경험을 제공한다.

투싼은 1.6 터보 가솔린과 1.6 터보 하이브리드 두 가지 파워트레이스로 운영된다.

1.6 터보 가솔린 모델은 기존보다 13PS 높은 최고 출력 193PS와 최대 토크 27.0kgf·m를 발휘하며, 기존 7단 더블 클러치 변속기 대신 8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해 여유로운 동력 성능과 부드러운 변속감을 제공한다.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현대차 그룹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해 기존보다 10PS 높은 시스템 최고 출력 245PS를 확보했다.

여기에 회생제동 영역 확대 제어와 관성 주행 안내, 공력 성능 개선 등을 더해 기존보다 1.2km/ℓ 향상된 복합 연비 17.4km/ℓ를 달성했다.

이 밖에도 투병뷰를 포함한 서라운드 뷰 모니터, 전방/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워크 어웨이 락, 콘솔 팔레스트 히트 트레이, 현대 애드거기어, 100W 초고속 충전 USB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을 기본 탑재해 주차 편의성부터 일상적인 차량 이용의 편리함을 높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디 올 뉴 투싼은 강인한 디자인에 진화한 기술과 실용성을 더해 고객의 다양한 일상에 자신감을 선사하는 SUV”라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디 올 뉴 투싼 외장.

‘모두의 창업’ 지역 오디션서 창업가 200명 선발

청년층 57.5%·IT 분야 35%…비수도권 청년 70%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린 창업 오디션에서 혁신 창업가 200명이 선발됐다.

선정자 10명 중 7명은 비수도권 창업가로, 지역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창업 아이디어가 주목받았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1차 모두의 창업’ 일반·기술트랙 지역 오디션을 열고 다음 단계에 진출할 창업가 200명을 선정했다.

선정자 가운데 39세 이하 청년층은 57.5%로 절반을 넘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3.0%로 가장 많았으며, 비수도권 선정자 비중은 70.0%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IT가 3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바이오·의료 18.5%, 하드웨어 9.5% 순이었다.

선정자들은 보유 기술과 현장 경험을 실제 사업 성과로 연결하며 사업화 가능성을 보여줬다.

전남광주지역에서는 제조업·IT 분야에서 25년간 경력을 쌓은 숙련 엔지니어가 이름을 올렸다.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

고 미래 자율운항선박 분야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상 탐사·감시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사업화에 나섰다.

이번에 선정된 창업가 200명에게는 사업과 자금 1000만원과 선배 창업가 멘토링 등이 지원된다.

이후 5개 권역 오디션을 거쳐 대국민 파이널 오디션에 진출할 1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